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20-21)

FAIL?? NO!!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교사자녀교육>

우크라이나에는 <선교사자녀학교>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을 위해 미국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믿음,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지수를 위해 예비하신 학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입학<TEST>를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학 테스트 결과는 <Fail> 이었습니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언어수준이 아니기에 입학을 허가할 수 없고, ‘2022년에 다시 입학시험을 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기다리던 요시아와 지수에게 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 볼게요!!” 아이들이 슬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학교 입학시험에 실패 했지만,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어요. 저희가 성실하고 행복하게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 드렸습니다.

며칠 뒤, 학교측은 교장선생님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9월 입학에 대해, 확답은 줄 수 없지만 가정과학교가 함께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도와보자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응원해주셨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일까지 8주간, 요시아와 지수는 선교사자녀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름언어캠프에 일주일에 세 번 등교하며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일은 학교 행정을 맡으신 <M 선생님>께서 여름방학 동안 매주 2일씩 요시아와 지수를 자신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도움을 주십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도와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성실하게 공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이들 안에 이루시는 일임을 보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언어캠프>

<아이들 언어 튜터와 함께>

<선교사언어훈련>

저희 부부는 9월부터 키예프 국립대학교 언어과정에 입학하여 우크라이나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비자유형이 ‘종교비자’이기에 입학할 수 없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종교비자’ 기한이 끝난 뒤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2022년 9월로 연기 된 것입니다. 2년동안의 언어과정에 성실히 수행하려 했던 저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의 언어훈련 또한 학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기도하며 길을 가던 중에 작은 학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브첸코대학(서울대같은)에서 언어학(석사)을 전공한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개인레슨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6-8월) 대학교 언어과정은 방학기간이지만, 현재 저희는 매일 러시아어를 집중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9월부터는 우크라이나어를 중심으로 언어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도 커서 저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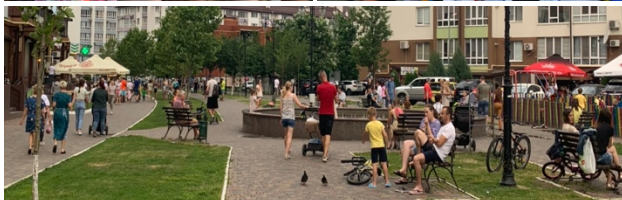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우크라이나’를 기업으로 주시고 품게 하신 후, 하나의 VISION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자’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온 후, 매일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신 <땅/마을>을 걸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라는 기도로 바꾸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할 때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의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니, 유모차에 앉아 부모와 함께 산책하는 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노는 아이들, 분필을 들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의 부모인 젊은 세대를 보게 하십니다.



<정착하게 된 키예프 외곽 마을>

저희가 옮겨 심어진 마을은 수도인 키예프 외곽 지역입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온 젊은 세대가 정착하는 곳입니다. 2019년 현지신문은 ‘키예프 외곽 지역의 인구는 20년 안에 50만명에서 117만명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히 현재 저희가 정착하게 된 키예프 남서쪽 마을들은 8배 이상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마음을, 원로 선교사님들과 현지 동역자에게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동일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전도가 매우 어렵다, 인격적인 관계와 삶을 통한 전도가 매우 필요하다. 또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기에 주일학교가 매우 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보여주셨다면, <교회개혁>과 <크리스천 유치원>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 지금 이 땅에 너무 필요한 사역이다. 선교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저희 가족은 매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교회와 교육선교)을 위한 땅을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시내에는 부동산 값이 이미 매우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지역은 키예프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1평당 7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에 알아본 곳은 450평에 20만불(한화 약 2억 3천여 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에 속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저렴한 편인데, 곧 오를 전망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얼마전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이 땅의 젊은 세대와,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심고, 그들을 이 땅의 미래를 위한 나무로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뜻에 한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제목>

1. 모든 정착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선교 정탐에 필요한 자동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3. 현지언어과정을 열어주시고 아이들의 정착 과정에 큰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선교방향과 전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만나게 될 이들을 선교적 존재와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2.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붙드시고, 우크라이나가 하나되는 은혜를 주소서.
3.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다시 핵분열 징후가 보이는데,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4.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강대국의 관계와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얻게 하소서.
5.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와 교육선교>를 열어갈 수 있는 현지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과 기업을 주소서.
6. 요시아 지수가 9월에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입학하게 하소서.
7. 보내는 선교사님들과 파송교회와 협력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게 하소서.

